

충남의 미래를 밝힐 정책 과제를 짚어본다

2020 도정의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 이인화 | 충청남도지사(권) 행정부지사



2009년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 4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뜻 깊은 한 해였다.

특히,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유류유출사고의 여파로 침체된 서해안경제 회생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미국 발 금융위기로 빚어진 어려운 지역경제는 예산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러한 역동적인 도정운영으로 지난 2006년 13억 7,100만\$에 불과하던 외자유치가 2009년 말에는 무려 51억 6,800만\$에 이르렀고, 1인당 GRDP는 2006년 2,664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같은 괄목할 만한 도정 성과는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의 설정과 치밀한 실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10년은 민선 4기가 매듭을 짓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한 해이자, 거시적 안목의 「장기적 도정운영 목표」 설정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있는 지적능력 배양」의 필요성과 함께,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 속에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本敝에서는 ‘산업정책’, ‘환경’, ‘투자통상’, ‘농업·농촌’ 등 도정 주요 분야의 정책 환경과 비전을 분석해 보고, 부문별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충남도정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이젠 官주도의 개발행정시대가 아니라 민주화와 분권화에 따라 당사자간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중시되는 참여행정의 시대이다. 때문에 도정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추진이 필요하다.

모쪼록 충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정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한다.